



꼭꼭 눌러쓰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글귀

필^筆 사^寫

글. 김지수 MBC 음향제작파트 사원

말

하루 종일 버리고 버린 나의 말
사람들 가슴에 던지고 던진 나의 말

비수가 되지 않았기를
쓰레기가 되지 않았기를

더러는 조그만 꽃씨 되어
싹이 틀 수 있기를.

반갑게 찾아온 평화로운 휴무일, 책 몇 권을 가방에 챙겨 넣고 카페로 향한다. 창가 자리에 앉아, 책과 펜을 꺼내 든다. 이제는 꽤 두께가 쌓인 노트를 넘기며, 다음 페이지를 준비한다. 한 페이지를 쓰고 커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한 장을 넘겨 또 한 페이지를 적는다. 가끔 창밖 거리의 풍경을 내다 보다가 운 좋게도 마음에 닿는 문장을 만나게 되면 펜을 멈추고, 그 아래에 내 생각을 덧붙여 본다. 아무것도 서두를 일이 없는 날, 그저 한 문장을 옮겨 적는 일로 하루를 채운다.

직장생활을 하며 무언가 '즐겁고 보람찬' 취미를 찾아보려 이것저것 시도해 보았다. 그러다 만난 게 바로 '필사(筆寫)'다. 붓 필, 베껴 사의 필사는 말 그대로 책이나 글의 내용을 손으로 베껴 쓰는 것인데 요즘에는 관련 책도 꽤 많이 나와 좋은 문장을 찾기 위한 수고도 덜었다.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건 다 손대보는 학생 시절에 잠시 해 보기도 했지만, 사회인이 되어 다시 만난 필사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근 몇 년 동안은 손으로 긴 줄글을 적을 일도 없을뿐더러, 줄곧 자리에 앉아 글을 읽고 따라 적으려 애쓸 일도 없었기 때문이다. 꼭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도 않고 요구받지도 않은 글을 옮겨 적는 단순한 행위 속에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루의 속도가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 시작은 <하루 한 장, 나의 어휘력을 위한 필사 노트>라는 책이었다.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작가의 인문학적 감상이 적힌 에세이와 같은 책에는 공감이 잘되지 않아 책을 고른다면 자기계발서나 실용 서적을 선호하는 편이다. 그런데 우연히 이 책의 굉장히 진취적인 책등의 제목과는 달리, 감각적으로 예쁜 밝은 하늘색의 표지 디자인이 눈에 띄어 집어 들었다. 대충 훑어보니 평소엔 찾아 읽지 않을 시와 고전 소설 등의 문장을 따라 쓰며 어휘력을 넓힌다는 구성이 흥미로웠다. 그 당시 발견했을 때에는 이 '필사'만을 위한 책이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다. 가벼운 호기심으로 시작했다지만, 지금은 애정을 가지고 오래 이어온 취미이자 습관이 되었다.

책의 저자 유선경은 '필사, 살기 위하여'라는 꽤나 강렬한 서문으로 시작한다. 처음에는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말의 의미가 자연스레 이해되었다. 책은 의성어와 의태어에서 시작해 관찰과 묘사, 그리고 공감과 표현으로 확장되는 구성인데 그동안 느끼지 못한 단



카페에서

어 하나하나에서 문장의 온도와 결이 바뀐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 이 책을 필사하며 특히 큰 감동과 여운을 준 한 장이 있었다.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계는 속의 연꽃>, 문학과지성사, 1994

이런 시가 있었다. 평소라면 후루룩 3초 만에 읽고 여운이
라고는 느끼지도 못하는 메마른 감수성에 무신경함을 가진
나였을 테지만 작가는 각주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이 시에서 ‘쿵쿵’이라는 의성어가 없었다면
기다림의 설렘과 긴장을 이토록 고조시킬 수
있었을까요. ‘발소리’라고 하지 않고 ‘발자국’
에 쿵쿵이라는 의성어를 부여한 것이 바닥에
찍힌 발자국을 따라 소리가 잇따라 울리는 것
같은 공감각을 입혀줍니다. (중략)”

‘쿵쿵’이라는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평범한 단어로 기다림의
설렘과 긴장을 느끼게 해준다니, 각주를 읽고 다시 시를 읽
으며 새삼 심장이 쿵쿵 울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처음으로
단어 하나로 문장의 긴장과 온도를 바꾸는 힘을 실감했다.
그저 시 한 권을 통째로 필사하더라도 깨닫지 못했을 것을
작가의 엮어진 말 하나에 이렇게 달라지다니. 이래서는 학
습지와 다름 없었지만 나는 진심으로 감사했다. 이후로는
이렇게 글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를 스쳐 보내지 않고 조금
더 단어의 울림과 감정의 세밀함을 느껴려 노력하였다.
나는 필사를 할 때 먼저 글을 한번 읽고, 천천히 되뇌며 손
으로 옮겨 적은 다음,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감상을 적는 루
틴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한 울림이 있을 때는 필사하는 것
이 너무나 즐겁다. 그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발견한 탐험가
가 조심조심 다가가듯 문장을 베껴 쓰는 손끝에 더 집중하
게 되었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음속에 새겨지며, 글이 단
순히 읽는 대상이 아니라 문장이 내 안으로 서서히 침투되
는 경험이었다.

두 번째로 손에 든 책은 법륜스님의 <지금 이대로 좋다
필사노트>였다. 이미 많은 사람에게 필사하기 좋은 책으
로 알려진 동명의 책의 문구를 발췌하여 출간된 책인데,
알록달록한 색지에 줄 없는 여백과 곳곳에 자리한 작고
귀여운 그림 덕분에 책을 펼치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
는 듯했다. 평소 나는 ‘힐링’에 관련된 글을 즐겨 읽는 편
이 아니고 무게가 가벼운 느낌이라 읽더라도 후루룩 넘기
고 마는 편이다. 그런데 필사를 하며 글을 한 자 한 자 시
간을 들여 옮겨 적다 보니 오히려 반대로 짧은 문장에도
곱씹어 볼 시간이 생기게 되었다. 몇 초면 읽고 지나갈 문
구가 종이에 새기는 과정이 추가되니 당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래서 내게 새로운 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
가 되었다. 더불어 이 책의 매 페이지 하단에는 이런 문장
이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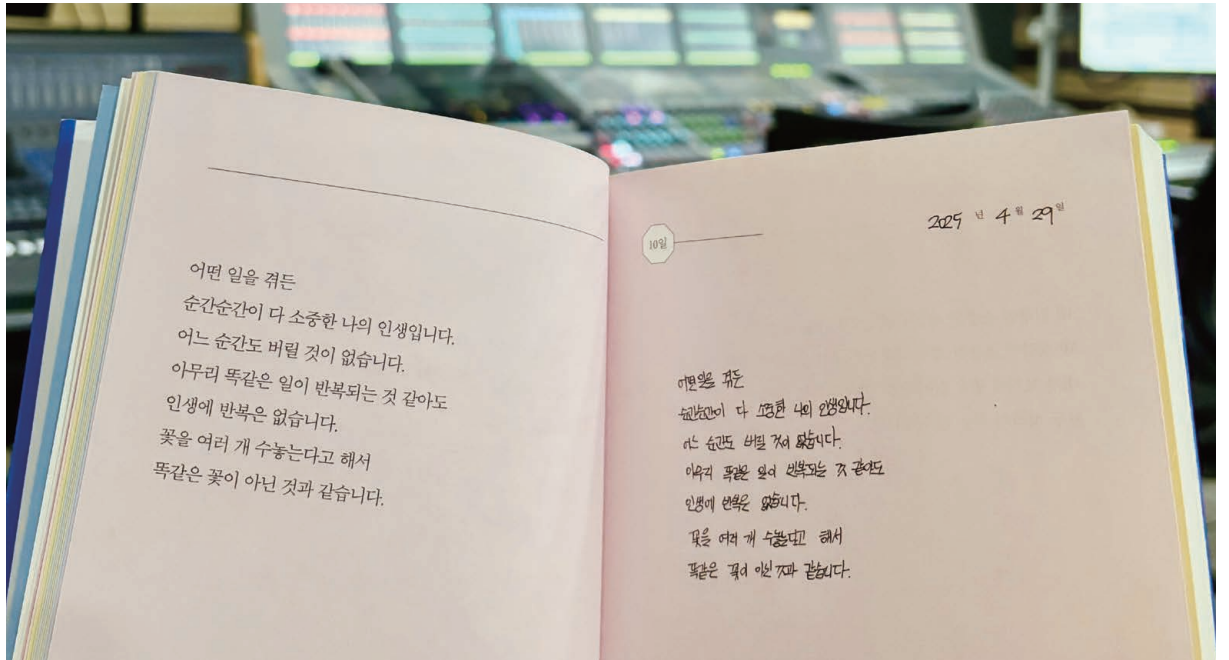
“지금 내 마음은 _____ .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이대로 좋다.”

이 밑줄이 쳐진 빈칸을 채우기 위해 잠시 멈춰 생각하다 보
면 자연스럽게 지금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지금 나는
어떤가? - 그래도 지금 이대로 좋다. ‘지금 이대로’라는 말
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조금은 이해하게 되
었다. 이 책은 일부러 근무 시작 전의 짧은 시간이나 퇴근
후의 고요한 순간에 주로 필사하곤 했다. 하루의 시작과 끝
에 마음에 안정을 주는 시간으로 삼기 좋았기 때문이다. 우
연히 펼쳐진 페이지의 글귀가 나의 상황과 맞닿아 다가올
때는 특별한 울림을 주기도 했다. 이 글을 만난 날은 지금도
기억나는 특별한 날이다.

어떤 일을 겪든
순간순간이 다 소중한 나의 인생입니다.

어느 순간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인생에 반복은 없습니다.
꽃을 여러 개 수놓는다고 해서
똑같은 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날은 가장 평이하고 루틴한 근무가 있는 날이라 그전까
지는 감상 없이 그냥저냥 있었을 텐데, 이 글을 마주하게 되
었을 때의 놀라움은 아직도 기억이 난다. 평범하고 반복되
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의 하루에도 고유한 의미가 있다니,
오늘도 내일도 또 다른 꽃과 같구나. 그때 나는 빈칸에 오
늘의 일상이 인생의 소중한 한 부분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
음을 적었다. 그렇게 필사는 나에게 단순한 ‘쓰기’가 아니라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생각을 정리하고 내면의 속도를 조절



그날 부조정실에서의 필사

하는 습관이 되어 있었다. 이 책을 필사하면서 얻은 것은 단어의 길이가 아닌 감정의 깊이였다.

세 번째로 만나게 된 책은 나태주 시인의 <필사, 어른이 되는 시간>이다. '소란한 세상에서 평온함을 찾는 가장 고귀한 방법'이라는 부제처럼 작가 스스로 '아침 시간'에 '가볍게 산뜻하게' 읽기 좋은 시만을 골랐다고 한 이 책의 시들은 하나같이 기분 좋아지는 문장들만 모아져 있다. 이 책을 필사하고 있노라면 언제나 기분이 산뜻해지는 듯한데, 중간중간 이벤트처럼 글을 적는 페이지에 몽글몽글한 일러스트가 삽입되어 있어 시화 작품을 만드는 듯한 느낌도 든다. 이 책은 함께 일하는 음악감독님의 추천으로 우연히 만나게 되었지만, 지금까지의 필사책과는 다른(사실은 가장 큰) 애정을 가진 책이 되어 멀리 떠나는 휴가지에도 함께 가는 책이 되었다. 노란 바탕의 책 표지에 시원하게 달리는 우체부의 편지들이 꽃바람이 되어 날리는 그림처럼 시편 하나하나가 꽃이 되어 마음에 날아 들어오는 듯하다.

'어른이 되는 시간'이라는 제목은 곱씹을수록 깊다. 나이로는 이미 어른이 되었지만, 감정과 태도의 균형은 스스로 아쉽기만 해서 아직 배우는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참이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더 지나야 어른이 될 수 있을



제주도 골밭이 보이는 창가에서

지, 될 수 있기는 한 건지 궁금하기만 했다. 하지만 시인 나태주가 건네는 시를 필사하며 안렴한 시간을 쌓아 가는 '나'에 대해 조금 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아침 인사

나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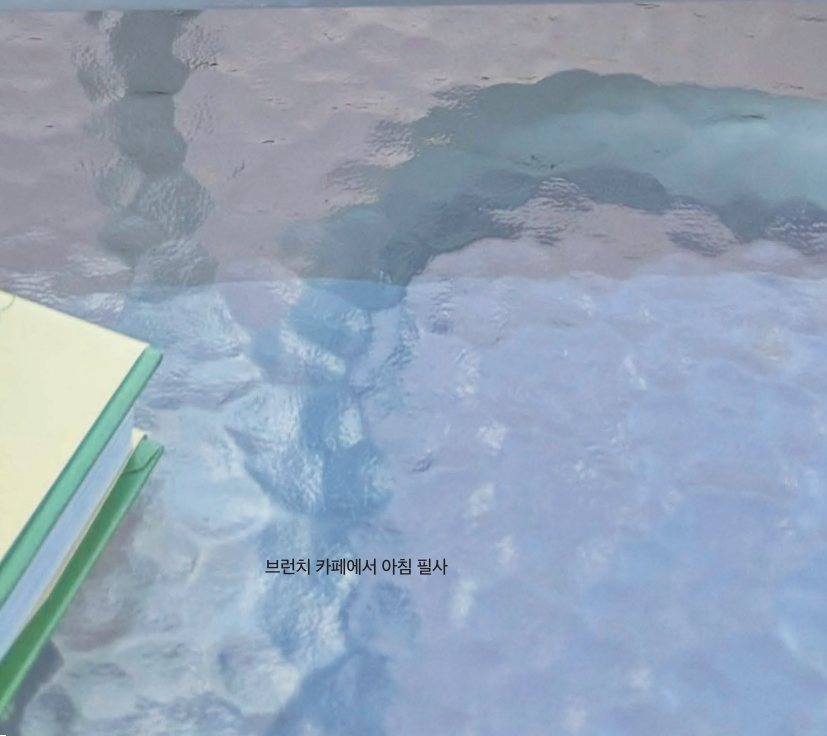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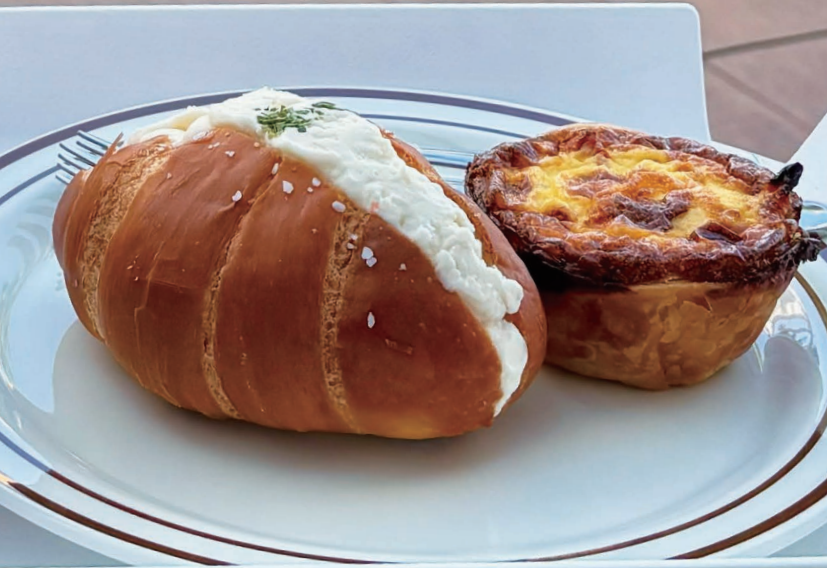
잘 잤어?
아침 햇빛은
눈부시고?
그리고
숨 쉬기는 좋아?
보이는 것 가운데
미운 건 없어?
그럼 됐어
오늘도
잘 살기 바래.

가만있어도 흐르는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살 수 있는지. 어른이 된다는 건 완벽하지 않아도 내 불완전한 순간을 받아들이는 연습이라는 것을. 필사는 '오늘도 잘 살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연습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식이었다. 지금 내게 필사는 일상의 일부다. 일부러 시간을 내기도 하지만 스스로 찾아가 질 때가 많다. 어느 때든 펜을 들면 머릿속의 소음이 잦아들고 마음의 속도가 달라지는 게 느껴진다. 사실 처음 필사를 하면, 그동안 내가 부러워 닮고 싶어 하던 어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했다.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더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전의 내가 생각한 어른 말이다. 정말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사실 좀 더 많은 시간이 쌓여야겠지만) 이제는 그보다는 이 자체로의 즐거움이 나를 더 큰 목적이 되었다. 지금은 일상에서도 좋은 글귀를 보면 좀 더 눈여겨보며 적어 간직하고 싶고, 더 편하고 예쁘게 적을 수 있을까 싶어 드로잉에 사용한다는 펜과 문구류를 사 보기도 한다. 일상 속 작은 것에 흥미를 갖게 되는 것은 또 새로이 즐겁다.





꼭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도 않고
요구받지도 않은
글을 옮겨 적는 단순한 행위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루의 속도가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다.



브런치 카페에서 아침 필사

최근에는 이런저런 일로 집중하기 어려운 눈의 초점을 펜 끝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너무 단순하거나 지난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하지만 시작하게 되면 적어도 한 페이지를 다 채우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게 되니 여기저기 흩어진 나를 모으기에 충분한 시간이 되었다. 글을 적으며 떠오르는 감정에 귀를 기울이며 나는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다정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다는 마음을 또다시 확인시켜 준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펜을 들고, 또 한 장의 필사를 시작한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내 가이 취미를 오래도록 이어가게 될 이유일 것이다.



퇴근 후 저녁 어두운 카페에서